

# 제조업 해외투자의 지원정책 방향

최동규 / 상공부 수출 2과 행정사무관

## I. 해외투자의 개념

해외투자란 국제간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의 자본, 기술,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외국증권의 취득, 외국기업에의 자금대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해외투자는 일반적인 상품 수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거주자(자연인, 법인)가 투자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비거주자가 주체가 되는 투자이민과는 구별된다.

해외투자는 장기자본이동과 단기자본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장기자본 이동은 기업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라 함은 해외 직접투자를 의미하며 주요형태로는 해외 자회사의 설립, 기존기업의 매수, 해외기업에의 출자 참가 또는 이러한 기업에 대한 장기의 금전대부 등이 있으며 투자 주체에 따라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투자비율에 따라 합작투자와 단독투자로 나눌 수 있고 해외투자의 동기에 따라 구분을 하면 시장지향형 투자와 생산요소지향형 투자 그리고 자원확보형 투자가 있다.

## II. 해외투자의 필요성

### 1. 현지국시장과 인접국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시장 기반구축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아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제3국생산을 통한 우회수출이나 현지생산을 통해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을 신장하여야 한다. 한편 선진국내에의 직접투자를 추진함으로써 선진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 2.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비교열위산업의 해외이전을 통하여 국내산업 구조 고도화

임금 상승 및 원화 절상으로 수출채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대외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환율이 안정되고 임금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함으로써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연장하고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 3.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

해외 의존도가 큰 광물자원, 임산물, 수산물 등의 개발 수입을 확대하여 저렴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자원 보유국의 주요자원 수출

제한강화 등 세계적인 자원 내쇼날리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 4. 투자상대국에서 제공하는 각종 특혜제도의 활용과 경제 협력 강화

개발국들이 자국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자 도입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제공하는 세제, 금융 등 각종 특혜제도를 활용하고 투자상대국과 호혜적, 협력적 바탕위에서 공동이익을 나눔으로써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이다.

### III. 해외투자의 현황

#### 1. 업종별 해외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68년의 한국남방개발(주)의 대인도네시아 산림개발투자를 효시로 하여 1989년 6월말 현재 잔존투자 실적은 766건에 11억 7,300만불에 달하고 있으며 투자 금액면에서는 광업, 임업, 등 자원 개발 투자가 4억 9,900만불로서 42.5%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 건수로 볼 때는 무역업이 331건, 제조업이 226건으로 각각 43.2%, 29.5%에 달하고 있다.

업종별 해외투자 실적 ('89.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 불, %)

	건 수	비 중	금 액	비 중
자원 개발	53	6.9	499	42.5
광업	14	1.8	391	33.3
임업	10	1.3	66	5.6
수 산업	29	3.8	42	3.6
제조업	226	29.5	385	32.8
비 제조업	487	63.6	289	24.7
무역업	331	43.2	154	13.1
건설업	54	7.0	40	3.4
부동산	16	2.1	34	2.9
운수 보관업	25	3.3	4	0.4
기타	61	8.0	57	4.9
계	766	100.0	1,173	100.0

#### 2. 제조업 해외투자 현황

제조업 해외투자는 1973년에 (주) 미원이 대인도네시아 투자를 시초로 '80년대 중반까지는 연평균 5~6건 정도 진출 하였으나 1987년 이후 제조업

중의 해외 진출이 급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원화절상 및 임금상승 등 국내투자 환경의 악화와 미국, EC 등 주요 선진제국들의 대한수입 규제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섬유 및 전자산업 등 수출 주도산업의 제3국 우회수출과 현지 조립생산 방식의 해외투자 진출이 부쩍 늘어난 때문이다.

업종별 투자현황을 보면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은 섬유, 신발, 완구 등 경공업 위주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자, 기계류 등 기술집약 산업은 북미 및 구주지역으로 진출하였으나 전자업종의 경우는 가전 3사를 중심으로 해외 생산기지의 확충을 위하여 투자 지역의 다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주요 품목별 투자실적 ('89. 5월말 현재)  
(단위 : 천불, %)

	건 수	금 액
섬 유	63(29.0)	40,822(10.8)
전기전자	32(14.7)	59,143(15.7)
기 계	8( 3.7)	37,827(10.0)
신 발	11( 5.1)	14,521( 3.9)
기 타	103(47.5)	224,738(59.6)
계	217(100.0)	377,738(100.0)

#### 3.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지역별로는 판매시장 개척과 보호무역 장벽 회피를 위하여 북미지역 진출이 279건에 4억 7,700만불로서 금액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많으며 저렴한 인건비 활용을 위한 동남아지역 진출은 253건에 3억 3,000만불로서 건수기준으로 가장 많으며 해외투자가 주교역시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 해외투자 현황 ('89.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불, %)

	건 수	비 중	금 액	비 중
동 남 아	253	33.0	330	28.1
중 동	34	4.4	145	12.4
북 미	279	36.4	477	40.7
중 남 미	71	9.3	50	4.3
유 럽	68	8.9	49	4.2
아 프 리 카	21	2.8	18	1.4
대 양 주	40	5.2	104	8.9
계	766	100.0	1,173	100.0

#### 4. 기업 규모별 해외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그 대부분이 대기업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10억 8,100만 달러로서 92.2%, 전수기준으로는 552건으로 72.1%에 달하며, '70년대는 종합상사 등 대기업의 무역업, 현지법인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80년대에는 제조업 등 투자업종의 다양화와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적응 능력으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특히 건수면에서 '80년말의 2.8%이던 것이 '85년말에는 12.9%, '89. 6월말 현재에는 27.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들어 중소기업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소기업 해외투자 비중 추이

	'80년말	'85년말	'88년말	'89. 6월말
전투자업체(건수)	287	443	668	766
중소기업체(건수)	8	57	157	214
비 중(%)	2.8	12.9	23.5	27.9

### IV.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문제점

#### 1. 제조업 해외투자의 저조

산업설비수출, 인력송출 및 부가가치 효과가 큰 제조업종의 해외진출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최근 강화된 해외투자 지원시책에 영향을 받아 제조업 해외투자가 활발한 편이나 전체 해외투자액의 32.8%에 불과하여 미국 41.3%, 대만 65.3%에 비하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해외투자 규모의 영세성

'87년말 현재 전당 평균 투자 규모는 181만 불로서 작은 규모는 아니나 투자규모가 큰 광업 등 자원개발 투자를 제외하고는 평균 투자규모가 100만 불 이하인 것이 전체 투자의 80.9%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소규모 단계임을 알 수 있다.

#### 3. 투자 지역의 편중

지역별로 볼 때 대선진국, 후진국 투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회

피하는 방편으로 대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89. 6월말 현재 해외투자 중 북미지역에 4억 7,700만 달러(40.7%) 동남아지역에 3억 3,000만 달러(28.1%) 가 투자되어 투자지역이 주교역시장 위주로 편중되고 있으며 지역별 투자 업종의 편중도 심해 동남아지역의 경우 자원개발이 전체 투자액의 54.4%이며 북미의 경우는 제조업 투자가 44.1%를 차지하고 있다.

#### 4. 업종별 편중

투자업종에 있어서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광업, 임업,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투자 금액상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부문 투자의 증가로 해외 투자 비중이 점차 수출보안적인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제조업종의 경우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업간 과당경쟁을 할 우려가 있어 해외투자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자허가 또는 신고 수리전에 사전 조정을 하고 있다.

#### 5. 제조업 투자 지원 제도의 보강 필요

1986년 이후 국제수지의 흑자전환 이후 정부는 허가 절차의 간소화, 금융, 세제상의 지원 확대 등 해외투자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여 왔으나 국제수지 흑자시대에 상응하는 해외투자의 자유화를 더욱 넓히기 위하여 투자 보험 지원 개선, 투자 보장이 미완비된 투자대상국과는 투자 보장 협정과 2중과세 방지 협정 체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6. 투자 정보 지원 체제의 미정비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사업 경험이 일천하고 또한 해외 사업에 정통한 국제 경영자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언어와 상관습의 차이 그리고 현지 정부의 간섭 등 해외 투자 환경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현지 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현지 사업 능력이 아직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해외투자 정보 수집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미흡으로 적극적인 해외투자 진출, 특히 중소기업 진출에 애로가 많다.

특히, 중국, 소련, 동구제국과의 무역 확대 경제 협력 증진 등 특수 지역에도 투자 진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투자 정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생생한 현지 정보 입수가 어렵다.

또한 합작 상대방 설정과 현지 노사 및 조세 관계 법령 미숙, 현지 금융 조달 애로 등 정보의 부정확 등으로 현지 진출 후 생산 시설 감축 및 철수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 V. 제조업 해외 투자 진출 여건 및 지원정책 방향

### 1. 해외 투자 진출 여건

#### 대내 여건으로는

첫째, 무역 흑자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하였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무역 흑자 기조에 따라 종합적인 해외 투자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60년대 후반부터 해외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둘째, Hoffman의 공업화 발전 단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제3 단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90년대에는 최종 단계인 제4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화학제품 수출 비중도 '87년도 52.6%에서 '91년도에는 63.9%로 추정되는 등 산업 구조 고도화 및 플랜트 등 수출 능력이 제고되고 있다.

셋째, 원화 강세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대비하여 낮은 인건비 등을 활용한 현지 투자 및 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고 일본, 대만 등의 전략적 해외 투자 진출에 따라 섬유, 신발 등 노동 집약 상품의 경우, 대외 경쟁력 저하로 수출 산업의 해외 진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대외 여건으로는

첫째, 선진국의 대한국 수입 규제 등 보호 무역주의 및 상호주의 확대로 상품 수출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개도국의 채무 누적 및 상환 부담 증가에 따라 국제 상업 은행에서는 대개도국 여신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자 도입 환경의 악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셋째, 동서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에서는 경제 개

발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 업종 제한, 투자 지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및 관세 감면 혜택 등 투자 우대 조치 강화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넷째, 미국, EC 국가 등 선진국도 경기 침체 및 높은 실업률에 따라 일본, 대만, 한국 등 무역 흑자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에 성공하여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가로서 자동차, 반도체, 등 차본, 기술 집약적 상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세계 유수의 교역 대국으로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감이 증가하는 등 우리의 경제 발전과 함께 각국의 대한국 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 2.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우리나라 해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우선 필요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적응하여 기업이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국제화된 기업의 역할은 강조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 하의 범 세계적 시장에서 최종 소비 수요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범 세계적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변화되었고 또 변천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앞으로의 대내외적 기업 경영 환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으로는 1986년 이후 국제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기업 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의 국제화가 요청되는 등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산업 구조 조성 및 경제 마찰 우회와 연계한 제조업 해외 투자 진출을 적극 장려, 지원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펴나갈

방침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 첫째, 해외투자 자유화의 계속 추진

그동안 정부에서는 해외투자 여건의 성숙정도에 따라 해외투자의 자유화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500만 달러 이하의 사업은 해외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히, 투자신청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0만 달러 이하의 사업은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추이, GNP 규모 및 외환자유화속도 등을 감안하여 해외투자의 자유화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해외투자를 완전 자유화 할 계획이다.

#### 둘째, 해외투자에 대한 제반지원시책의 강화

해외투자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 규모를 '88년도에는 400억 원, '89년도에는 1,000억 원, '90년도에는 1,500억 원으로 증액하여 자금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아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조건도 대기업은 연 8.5%, 소요자금의 60%로하고 중소기업은 연 7%,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하여 소요자금 공급을 원활히 할 것이다.

또한 대외 경제협력기금 중 일부를 확보하여 해외투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투자 진출시 자금면에서 겪는 어려움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할 계획이다.

세제면에서는 현재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제도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 및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각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법인 과세를 둘러싼 조세 마찰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2종과세 방지협정의 체결 확대도 적극 추진하는 등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강화해 나아갈 예정이다.

#### 셋째, 해외투자 정보제공체제의 강화

정확하고도 풍부한 투자정보가 해외투자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으로 보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정보 기능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기타 연구소의 해외투자 연구조사 기능을 확충하고 체계화하여 투자 정보면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 넷째, 해외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해외투자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식도 제고시켜 해외투자 진출 분위기도 꽉꽉게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해외투자는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쟁, 수용 등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한 투자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보장 협정의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투자 보증기구에도 가입토록하여 우리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

#### 다섯째, 해외투자 사후관리 체제 확립

해외투자 지원 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기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다.

특히 현지공간이나 무역관을 중심으로 진출기업들의 현지 사업 수행에 따른 애로 및 견의사항을 수집하고, 운영상황 등 제반 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 시책을 강구토록 할 것이다.

정부는 해외투자의 자유화 과정에서 해외투자에 관한 단계적인 제도의 정비를 통해 해외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산업정책과 연계된 단계적, 예시적인 투자 조성 및 관리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